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 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신자 전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경유)

제 목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 개최 결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폐기물 매립의 적정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15.8.26)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결의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폐기물매립업계 자율정화 활동을 추진키로 하고 결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하였으며, 아울러 매립업계 활성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폐기물매립업계 자율정화 활동 추진계획

가. 「자율점검단」 편성 및 운영 추진('15.9월 ~ 12월)

- 자율점검단 2개조 편성·운영 / 매립장 안전사각지대 개선 및 폐기물 불법·부적정 처리행위 근절

나. 매립현장 CCTV 설치·운영 법제화 추진

- 폐기물 매립시설 투명성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

다. 폐기물매립업체 「자율안전교육」 실시

- 각 업체별 자체 안전교육 실시로 각종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

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

- 각 업체별 안전사고 개선 제안제도 / 사업장 위험요소 신고제도 / 우수사원 인센티브 제도 시행

2. 매립업계 활성화 방안 건의의견

가. 매립시설 태양광 REC 기준 전환[부지(0.7~1.2) ⇒ 시설물(1.0~1.5)]

나.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매립종료 기간 개선[10년 이상 ⇒ 10년 이내]

붙임 :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 개최 결과서 1부. 끝.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 협회 장



담당 김정훈 팀장 김진오 사무국장 장기석 상근부회장 진원기 회장 이민석

협조 한매협 2015 - 40호 (2015. 9. 2) 접수
시행 157-7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등촌동, 우리벤처타운) / www.kiwrma.or.kr
전화 02-718-7900 전 송 02-718-7171 / kiwrma@kiwrma.or.kr / 비공개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 개최 결과

I | 개요

1. 행사명 : 「폐기물 매립업체 자율정화 간담회」 및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
2. 일 시 : 2015. 8. 26(수), 11:00~12:30
3. 장 소 : 천안상록호텔 장미홀
4. 참 석 자(25명)
 - 환경부 : 자원순환국 홍정기 국장 / 폐자원관리과 배문건 사무관 · 송채영 주무관
 - 업 계 : 이민석 회장 / (주)와이엔텍 김태영 대표 / NC부산(주) 강경진 부회장 / 에코스시스템(주) 이준길 대표 / (주)진흥중공업 박찬일 회장 / 부산그린파워(주) 성창제 대표 / (주)이에스티 차봉길 대표 / (주)경주산업개발 강덕신 대표 / (주)TSK이엔이 유진하 대표 / (주)그린바이로 김영석 대표 / (주)유니콘 송남용 대표 / 아세아테크(주) 김태진 대표 / (주)이에스청원 윤우식 대표, 이재준 전무 / KC환경개발(주) 정문택 전무 / (주)보림CS 황조연 이사 / (주)세창이엔텍 김용린 이사 / 한맥테크산업(주) 반종기 전무 / (주)국인산업 이근배 이사 / (주)와이에스텍 박태원 부장 / 동양에코(주) 이주창 차장

II | 주요내용

1. 폐기물 매립업체 자율정화 간담회

가. 「자율점검단」 편성 및 운영 추진

- 자율점검단 2개조 편성·운영하여 매립장 안전사각지대 개선 및 폐기물 불법·부적정 처리행위 근절

※ 비회원사의 경우 환경부 협조를 통해 점검추진

- 대표자 월례모임 시 매립장 순회방문을 통한 자율점검 병행
- 실무기술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립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 활성화

나. 매립현장 CCTV 설치·운영 법제화 추진

- 폐기물 매립시설 투명성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
 - CCTV 용도, 녹화테이프 보존기간 등의 제한 필요
 - 폐기물관리법 관리기준 포함 문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발생 위험
 - CCTV 설치 시 보안문제 등 부적정 활용 우려

다. 폐기물매립업체 「자율안전교육」 실시

- 각 업체별 자체 안전교육 실시로 각종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

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

- 안전사고 개선 제안제도, 사업장 위험요소 신고제도, 우수사원 인센티브 제도 시행

마. 기 타

- 매립장 사후관리 관련 정기검사 및 종료검사 시 중복되는 사항이 많음에 따라 조정 필요
- 정기검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선 필요

2.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

가. 폐기물매립업계 ‘결의문 채택’ 및 ‘환경부 전달’

나. 흥정기 자원순환국장 격려사

- 자원순환산회전환촉진법 추진을 통해 매립은 줄이고 소각열에너지 회수, 재활용, 자원순환 유도
- 매립시설은 국가 기반시설로 폐기물관리법 등으로 관리 필요
- 반복적인 매립시설 사고 예방위해 자율적인 노력 필요
- 평소 정부와의 신뢰관계 구축으로 위기상황 시 신속 대처 필요

3. 매립업계 활성화를 위한 건의의견 환경부 전달

가. 매립시설 태양광 REC 기준 전환[부지(0.7~1.2) ⇒ 시설물(1.0~1.5)]

나.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매립종료 기간 개선[10년 이상 ⇒ 10년 이내]

Ⅲ

협회 향후계획

1. 「자율점검단」 편성 및 운영
2. CCTV 설치 법제화 건의서 제출
3. 「자율안전교육」 및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제도」 운영 요청
4. 매립업계 활성화를 위한 「매립시설 태양광 REC 시설 기준 전환 마련 토론회」 개최
5. 폐기물매립업계 자율정화 추진 성과 보고

첨 부 : 1. 결의대회('15.8.26)에서 채택한 결의문 1부.
 2.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 현장사진 1부.
 3. 결의대회 언론보도 자료 1부. 끝.

결 의 문

우리 산업폐기물매립업체는 폐기물을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섬으로써, 폐기물최종처분업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폐기물을 처분함에 있어 상호간의 불법·부적정 처리 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종사원에 대한 자율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

2015. 8. 26.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원 일동

<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 현장사진 > (2015. 8. 26)



< 자율정화 추진방안 마련 간담회 현장사진 >



< 결의문 낭독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이민석 회장 >



< 결의문 제창 - 참가자 전원 >



< 결의문 전달 >



< 격려사 - 환경부 홍정기 자원순환국장 >



< 기념촬영 >

〈 결의대회 언론보도 자료 〉 (2015. 8. 26)

폐기물 매립업체 “자율점검단 운영·매립장 CCTV 설치” 결의

최종수정 534800;05940<48

전국 22개 폐기물매립업체가 폐기물 적법 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주관으로 26일 천안상록호텔에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폐기물매립업체 대표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점검단 운영 △폐기물매립장 CCTV 설치 등 자율정화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자율점검단은 먼저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주관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점검반(2개반)을 편성해 전국 폐기물매립업체 32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협회 팀장급 1명과 매립업체 회원사 중 근무경력 10년 이상 된 경력자 2명으로 총 2개 반(총 6명)이 편성·운영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석면 등 폐기물종류별 매립처분방법 준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적정처리 등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단은 점검결과 법령 미 준수 등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에 일정기간을 부여해 자체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개선결과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에 제출해 심사한 후 심사결과가 미흡한 업체는 해당 시도·청감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하는 등 자체 자율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처분에 따른 투명성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매립장 출입인·계근대·매립구역 등 CCTV 설치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중사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규정도 재정비한다.

폐기물매립업체들은 개별사업장별로 오는 9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전 중사자를 대상으로 △재난대응메뉴얼 작성·정비와 비상연락망 숙지 △보호장구·사고 진압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율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사고 개선 제안 △사업장 위험요소 신고 △우수사원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를 운영해 사업장 내 위험요소 사전 발견·개선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업체의 자율적인 정화결의 다짐행사를 계기로 '제반 법규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정화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저작권지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 > 뉴스 > 뉴스 > 에너지관리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

산업폐기물매립협, 매립업계 대표 대거 참석

2015년 08월 26일 (수) 14:00:33

김나영 기자 mykim@tenews.kr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회장 이인석)가 폐기물 적법처리와 관련 자율정화 다짐을 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26일 천안상록호텔에서 전국 22개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물 적법 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폐기물 적법처리 자율정화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폐기물매립업체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정검단 운영', '폐기물매립장 CCTV 설치' 등 자율정화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자율정검단은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주관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점검반(2개반)을 편성해 전국 폐기물매립업체 32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협회 팀장급 1명과 매립업계 회원사 중 근무경력 10년 이상 된 경력자 2명으로 총 2개 반(3인1반, 총 6명) 편성·운영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체별 석면 등 폐기물종류별 매립처분방법 준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적정처리 등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 중점 대상이다.

자율정검단은 이번 점검결과 법령 미 준수 등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에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자체개선을 유도하고 개선결과를 산업폐기물매립협회에 제출해 심사한 후 심사결과가 미흡한 업체는 해당 지도·점검기관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자체 자율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매립처분에 따른 투명성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해요소 사전제거 및 예방을 위해 폐기물매립장 출입문·계근대·매립구역 등 CCTV설치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폐기물매립업체들은 개별사업장별로 오는 9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정비 및 비상연락망 숙지, 보호장구 및 사고 진압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율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개선 제안, 사업장 위험요소 신고, 우수사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를 운영해 사업장 내 위해요소 사전 발견 및 개선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해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매립업계의 자율적인 정화결의 다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이를 계기로 ‘제반 법규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정화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